

조선데스크

강정마을 백서 만들자



박 중 헌
사회부 차장

수년 전부터 제주도의 공무원이나 기자를 만날 때마다 질문한 게 있다. “강정마을 주민 1500여명의 절반 정도가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다는데, 이제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느냐”고. 대답은 거의 언제나 “변동 없다”였다. 이해되지 않았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법적·행정적·정치적 절차가 장애물을 하나씩 넘어가며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더디게나마 흘러가고 있었고, 국민이나 제주도민 여론도 기지 건설에 찬성하는 쪽이 많았기 때문이다. 보상에 불만 가진 사람도 거의 없다고 했다. 기지가 건설되면 강정마을이 누리는 경제 효과도 상당히 큰 것으로 추산됐다. 제주도에 흔한 종류의 바위와 붉은발발통게 같은 자연을 지켜야 한다거나, 해군기지가 미군 기지화해 중국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외부 세력의 설득력 약한 주장에 주민이 동의하고 있다고도 생각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기지 반대 주민이 지금까지 줄지 않는 이유는 뭘까. 수년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이 의문은 얼마 전 한 제주 토박이의 설명을 듣고 좀 풀렸다. 문제는 찬성·반대 주민 사이에 생긴 깊은 ‘감정의 골’이라 했다. 외부 세력이 개입해 허위 사실로 선동한 뒤부터 폭언과 폭력이 주민 사이에 횡행했고, 누가 찬성파이고 반대파인지 보이지 않는 꼬리표가 달려 두 패로 확 갈렸다는 것이다. 뜻이 다른 이웃·친척·가족이 말을 섞지 않았고, 닳을 휘두르는 경우도 생겨났다. 어느 것이 옳고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은 의미가 없어졌고, 생각을 바꾸는 것은 배신으로 물리게 됐다. 그 어떤 상황 변화가 와도 입장을 바꾸지 못하는 탓에 모두 빠진 것이다. 이런 상황이면 해군기지가 건설되고 마을이 멋지게 발전한다 한들 절반은 ‘어디 잘되나 보자’며 돌아앉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의식하는 나머지 절반의 삶도 괴곤할 수밖에 없다.

매년 시위와 소송, 국회의 예산 삭감 등 탓에 롤러코스터 신세였던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올해부터 순항하기 시작했다. 외부 세력의 시위는 미약해졌고, 국회의 요구 사항을 모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부 부처와 제주도가 얼마 전 합의함으로써 예산도 순조롭게 지원되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서 새로이 힘을 쏟아야 할 일은 강정마을의 극단적 갈등을 치유하고 교훈을 찾는 일이다.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가 나서야 한다. 심리 상담가들은 주민의 거칠어진 마음을 다독여주고, 심리학·사회학·인류학자들도 마을에 들어가 해결 방안을 연구해봐야 할 것이다.

제주도민 사회도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국민 통합을 기치로 내건 새 정부가 주요 과제로 삼고 나서는 것도 좋을 것이다. 강정마을은 갈등이 거칠게 충돌하는 우리 사회의 극단적 단면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전국에서 크고 작은 지역 단위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많을 것이다. 강정마을 사태의 전 과정을 백서로 만들고, 이를 통해 주체적 비폭력적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을 함께 연구하고 익혀보자. 미래를 위해 이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좋을 것이다.

朝鮮日報 The Chosunilbo 단기 4346년

우100-756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61번지 전화안내 02/724-5114

독자서비스센터 전화 1577-8585 FAX 02/724-6299 홈페이지 morningplus.chosun.com

광고신청·인내 전화 02/724-5838, 6666 FAX 02/724-5879 홈페이지 ad.chosun.com

구독·배달안내 전화 080-900-0077(전국 공통)

사장 方相勳 발행인·인쇄인 邊龍植 주필·편집인 姜天錫 편집국장 姜孝祥

구독료: 한달 1만5000원, 1부 800원

1964년 1월 1일 등록번호 가-9호·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일본 전문가 칼럼



야나기마치 이사오
게이오대학 교수·경영학

“
‘엔 약세 원화 강세’ 지속 전망에
히비 엇갈리는 韓·日 기업들…
환율 변화 과대평가할 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높일 기회 삼아야
도요타도 엔高에 고통 받다가
車 품질 경쟁력 높여 전화위복

”

일본 정부가 작년 11월 중의원을 해산한 이후 엔화(円貨)와 원화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엔고(円高)로 고통받던 일본 기업들은 오랜만에 웃을 짓고 있다. 반면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울상을 짓는 한국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원 약세로 확보했던 수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본은행 총재로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전 아시아개발은행 총재가 20일 취임했다. 구로다 총재는 국회 등에 출석, 엔화에 대해 “2008년 리먼 쇼크 이후의 지나친 엔고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구로다 총재는 직접 환율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강력한 금융 완화 정책을 공언하고 있다. 이는 엔 약세가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일본 경제에 엔화 약세의 긍정적 효과가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수출 증가라는 ‘엔저(円低) 혜택’이 국내 생산을 자극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국내 생산을 기초로 수출하는 기업에 환율 환경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자국 통화 가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수출의 장점이 커진다. 하지만 국내 생산에 들어가는 부품·소재, 제조 장비 등을 해외에서 구매하는 분야에서는 수입 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다. 밀가루, 석유 등 수입 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해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도 커진다.

이 때문에 자국 통화의 약세(弱勢)가 반드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최고 경영자는 미리 시나리오 몇 개를 만들어 급변하는 환율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자국 통화를 둘러싼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환율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글로벌 생산 활동의 전진이다. 자국 내 생산 거점에 지속적으로 의존해 수출하는 것은 글로벌 생산이 아니다. 글로벌화한 기업이라면 지구적 시각에서 생산하고 판매해야 한다. 환율 변동 대응책도 글로벌 생산 활동이라는 관점에서 마련해야 한다.

환율의 변화를 ‘과대평가’ 할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 가진 글로벌 경쟁력을 재평가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한국 기업들은 현재의 환율 환경 변화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1980년대 중반 도요타 자동차는 급격하게 진행된 엔고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도요타는 1980년대까지 일본에서 경제성이 높은 소형차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했다. 두 번의 석유 위기를 거치면서 연비가 좋은 일본제 소형차 판매가 미국에서 급증했다. 대미 수출 증가는 미·일 간 무역 마찰과 수출 자율 규제 등의 단계를 거쳐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이어졌다. 플라자 합의로 엔 가치가 인위적으로 치솟으면서 일본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급락, 대미 수출이 급감했다. 도요타는 환율 변화와 미국의 수입 규제에 대응, GM과 합작 회사 설립을 거쳐 단독 자본으로 미국에 생산 공장을 설립했다. 그 후 도요타의 소형차는 모두 현지 생산으로 바꾸고 환율 리스크를 최소화한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

생산, 미국으로 수출하는 차량은 가격이 비싼 고급차 등에 한정돼 있다. 북미 현지 공장에서 도요타가 일본 내 공장과 품질이 같은 자동차를 생산한 것을 주목하고 싶다. 도요다 에이치(豊田英二) 당시 도요타 회장이 고집한 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는 단순한 환율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외국 어디에서도 국내와 같은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경쟁력이라고 판단했다.

세계적 기업이 된 현대자동차는 어떤가. 한국 시장 점유율은 기아자동차를 포함하면 70%를 넘는다. 국내 시장을 과점 상태로 장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원화 약세 환경에서 매우 효과적인 수출 전략이다. 해외 생산 비율은 아직 상대적으로 낮다. 앞으로 해외 공장 건설을 진행하겠지만, 환율 환경에만 집착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제 자신이 가진 경쟁력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 됐다. 한국 업체로부터 부품을 납품받는 일본 완성차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물론 지난해까지 이어진 원화 약세 환경이 크게 작용했다. 근본적으로는 한국 부품 업체의 품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최근 한국 부품 업체의 중국 공장에 대한 흥미로운 지적이 나온다. 품질관리가 중요한 공정은 일본 기업과 마찬가지로 고급 설비를 갖추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공정은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품질과 가격 양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 부품 업체들의 새로운 시도이다. 원화 강세에 좌우되지 않는 새로운 경영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萬物相

몰(沒)취미

섬진강은 봄이 물에 오르는 길목이다. 엇그제 첫 꽃죽제가 열린 광양 청매실농원을 찾았다. 섬진강 서쪽 쫓배산 기슭을 매화가 눈처럼 덮였다. 이른 아침 전망대는 삼각대 세워 둔 중년 사진가들 차지다. 대포만 한 렌즈를 달고 우박 쏟아지듯 셔터 소리를 터뜨린다. 오후엔 구례 현천마을로 산수유꽃 보러 갔다. 한적하다는 그곳에도 사진 동호회 버스들이 서 있다. ‘불혹의 포토클럽’도 있다. 사철 어딜 가나 아마추어 사진가 없는 곳이 없다.

▶취미란 마음의 발을 가는 일이다.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다. 아무것도 안 하는 휴식과 다르다. 누군가 취미를 정의했다. “독서는 취미가 아니다. 책을 수집하면 취미다. 팔을 나는 나비를 보는 건 취미가 아니다. 나비를 잡아 핀을 찢으면 취미다.” 취미가 일거리가 되는 순간 즐거움은 날아간다. “돈 받고 하라면 시들해지는 것이 취미”라는 우스개도 있다. ▶요즘엔 은퇴하고 열주 30년을 더 살아야 한다. 바다 같은 세월을 헤쳐 가려면 돈뿐 아니라 취미가 필요하다. ‘취미 없는 사람’이 2006년 10%였다가 19%로 늘었다는 조사가 나왔다. 나이 들수록 몰(沒)취미가 돼 50대 이상에서 26%로 가장 많았다. 한국리서치는 “살림 파파하고 마음 각박해진 탓”이라고 했다. ▶10년 전 불남 김민철

의 여덟 살 딸이 보도를 걷다 발이 꼬여 넘어질 뻔했다. 긴 숨 내쉬더니 딸이 말했다. “하마터면 꽃마리를 밟을 뻔했네.” 보도블록 틈에 하늘빛 꽃마리가 쏙쏙만 하게 피어 있었다. 두 딸은 예닐곱 때부터 아파트 앞에 핀 꽃이 뭐냐고 물어댔다. 그는 야생화 책을 사다 공부했고 가족과 함께 산하를 다니며 들꽃 사진을 찍었다. 마흔여섯 김민철이 문학소년 시절부터 품어 온 작가의 꿈을 야생화 이야기에 담아 ‘문학 속에 핀 꽃들’을 펴냈다. 그는 일간지 기자다. “주말 들꽃 여행 덕분에 기자 생활도 풍요롭다”고 했다. ▶흔히 남자는 일하느라, 여자는 살림하느라 취미 가질 새가 어딴느냐고 말한 다. 부부가 뒤늦게 뭔가 함께 해보려 해도 안 하던 것이라 어색

하기만 하다. 그렇다고 하고한 날을 TV 앞에서 보낼 수는 없다. 어느 초여름 온갖 봄꽃이 전국처럼 만발한 용인 한택식물원 못가를 여든도 넘어 보이는 부부가 걷고 있었다. 거동 불편한 할아버지가 몸을 수그러 꽃을 찍을 때마다 할머니가 남편 허리를 붙들어줬다. 유대 금언에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 좋은 취미만 빼고”라고 했다. 지금이라도 부부가 함께할 취미 찾아볼 일이다.

오태진 수석논설위원



최재천의 자연과 문화 [206]

‘가지 않은 길’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나는 어디에선가/한숨을 지으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은 아마 이 땅의 중·장년 거의 모두가 알고 있는 시일 것이다. 전체를 암송하지는 못하더라도 위에 인용한 시의 마지막 구절은 모두 어렵잖이나마 기억하고 있리라. 오늘은 바로 1874년 시인 프로스트가 태어난 날이다. ‘가지 않은 길’은 그가 병 때문에 하버드대학을 중퇴하고 뉴햄프셔주에 있던 그의 할아버지 농장에 머물던 30대 초반에 쓴 시이다.

지난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의 2년 가까운 임기를 마치고 떠나면서 “되돌아보면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과 궁금증도 있습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 시를 각별히 사랑하는 듯싶다. 나 역시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처음 배운 이 시를 늘 가슴에 품고 살았으며 실제로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 시 한 편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

꾼다. 통섭의 개념을 소개하느라 분주하던 2000년대 후반 어느 날 당시 서강대 철학과에서 가르치시던 엄정식 교수께서 내게 또 다른 프로스트의 시를 알려주셨다. ‘담을 고치며(Mending wall)’라는 시인데 거기에 ‘좋은 담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는 멋진 구절이 나온다. ‘담을 만들기 전에 나는 묻고 싶다/내가 무엇을 절은 모두 어렵잖이나마 기억하고 있리라. 오늘은 바로 1874년 시인 프로스트가 태어난 날이다. ‘가지 않은 길’은 그가 병 때문에 하버드대학을 중퇴하고 뉴햄프셔주에 있던 그의 할아버지 농장에 머물던 30대 초반에 쓴 시이다. 지난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의 2년 가까운 임기를 마치고 떠나면서 “되돌아보면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과 궁금증도 있습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 시를 각별히 사랑하는 듯싶다. 나 역시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처음 배운 이 시를 늘 가슴에 품고 살았으며 실제로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 시 한 편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통섭의 개념을 소개하느라 분주하던 2000년대 후반 어느 날 당시 서강대 철학과에서 가르치시던 엄정식 교수께서 내게 또 다른 프로스트의 시를 알려주셨다. ‘담을 고치며(Mending wall)’라는 시인데 거기에 ‘좋은 담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는 멋진 구절이 나온다. ‘담을 만들기 전에 나는 묻고 싶다/내가 무엇을 절은 모두 어렵잖이나마 기억하고 있리라. 오늘은 바로 1874년 시인 프로스트가 태어난 날이다. ‘가지 않은 길’은 그가 병 때문에 하버드대학을 중퇴하고 뉴햄프셔주에 있던 그의 할아버지 농장에 머물던 30대 초반에 쓴 시이다. 이제 나는 ‘가지 않은 길’을 내 가슴에서 풀어주려다. 시인은 다음 날을 위해 한 길을 남겨두었다면서도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했지만, 우리는 이제 다시 돌아와 가지 않았던 길을 갈 수 있다. ‘좋은 담’이란 가지 않아 아쉽고 궁금했던 그 길을 찾아 언제라도 쉽게 넘을 수 있는 낮은 담을 말한다. ‘인생 이모작’은 바로 가지 않은 길을 후회하지 않는 삶이다. 이화여대 석좌교수·행동생태학

송영길 인천시장은 인하구성원의 동의없이
인하대와 계약된 송도캠퍼스 건립 예정부지(5-7공구)를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

15만 인하대동문과 50만 인하가족은 분노한다!

송영길 시장은 50만 인하가족, 300만 인천시민과의 약속을 준수하고 이중계약을 즉각 파기하라!

박춘배 총장은 인하대의 미래를 짓밟은 독단적 결정을 철회하고 즉각 사퇴하라!

조양호 이사장은 송도캠퍼스 조성을 원래 계획대로 즉각 시행하라!

-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비상대책위원회 -



인하대학교수회대의원회

인하대학교총동창회

재미인하대학교동문회

인하대학교학생회